

|유아~초등 1, 2학년
<너는 이야기야>

밥 라츠카 글 | 크리스틴 하우데셀 · 케빈 하우데셀 그림 | 신형건 옮김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올해의 책



“책과 독서를 기리는 그레이스 린과 케이트 메스너의 화려한 협업.” -<커커스 리뷰>

“우리와 세상 사이의 상호 연결에 대한 놀라운 탐험.” -<북리스트>

“대담하고 감동적이다.” -<커커스 리뷰>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주제이다. 꼭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무엇이 빛나고 있는지 살피고 보는 시간은 중요하다. 그림책 『너는 이야기야』에는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상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밥 라츠카의 글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비유가 곳곳에 담겨 있다. 또 간결하고 리듬감이 있어 꼭 시를 읽는 것처럼 즐겁다. 판화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질감과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잘 어우러진 그림도 눈길을 끈다. 아이가 처음 자신과 세상에 질문을 가질 무렵 함께 읽기 좋은 그림책이다.

읽기 전 활동

1. 표지 그림에서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함께 말해 보세요.
2. 다음 예시와 같이 대상을 설명하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예시) (원숭이)는 (동물)이야.
3. 책의 제목을 읽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지은이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 표시를 해 보세요.
〈보기〉 동물 / 식물 / 우주선 / 지우개 / 수수께끼 / 새 / 자동차 / 친구
2.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을 책 속에서 찾아보세요.
 - 차, 배, 비행기 등의 탈것을 타는 손님.
 - 원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



3.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친구와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예시) 포유류, 자녀, 생명체, 우주 여행자, 친구

4. 늘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친구가 있나요? 좋은 친구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5.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라고, 배우고, 변화해요. 지금 내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나 익히고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지 생각해 보세요.

2. 내가 만약 작가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짓고 싶은지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3. 관심이 있거나 되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책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세요.

